# 생필품세트 제공 받고 1 대 1 관리…14일간 '고립 생활'

광주·전남 자가격리 322명 어떻게 생활하나

##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가도 안돼…하루 2회 유선으로 확인
## 5만9800원 상당 꾸러미엔 즉석밥, 통조림, 라면 등 담겨
## 감시망 피해 거리 활보 가능성도 있어 시민들 불안감 여전

광주·전남 지역민 322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감염이 의심돼 자택에 격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가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이 1대1로 붙어 관리되는 상황이지만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 보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78명, 전남은 43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탓에 자택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

현재로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2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등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격리되는 상황을 고려, 이들에게는 5만 9800원짜리 생활필수품 세트가 지급된다. 물·라면·즉석밥·통조림·라면 등 10개 품목으로, 격리되는 2주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보건소 등은 격리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 생필품 외에 의료용 폐기물 전용 쓰레기 봉투, 마스크·체온계·손 소독제 등 4종도 함께 지급된다.

격리 기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를 위한 외출을 제외하곤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격리 대상자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흡연자라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따로 써야 하고, 꾸준히 집 내부 소독도 권장하고 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하는 탓에 격리 기간이 종료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45만 400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23만원의 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광주시 등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 사실을 통보하면서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 관리한다고 하지만 하루 2회의 전화만으로 발열·거주지 이동 유무만 확인하는 게 전부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GPS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가 격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 앞에서 지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 2회보다 더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북구는 25일 자가격리자 120명에게 필수 생활물품을 제공했다. 이번 물품은 보건세트(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쓰레기봉투)와 생필품(물, 라면, 조미김, 쌀, 햇반, 참치통조림, 3분카레, 칫솔, 치약, 쓰레기봉투) 등 14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 교육부 휴원 권고에도… 망설이는 일선 학원들
## 광주 44.8% 휴원 그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부 휴원·등원 중지 권고에도 일선 학원들이 휴원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일보 2020년 2월 25일자 6면〉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휴원 중인 광주 학원·교습소는 동부교육지원청 591곳, 서부교육지원청 1533곳 등 모두 2124곳이다.

광주 전체 학원·교습소가 1월 말 기준 4741개인 점을 고려하면 44.8%가 휴원한 셈이다. 교습소는 교사 1명이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곳을 말하며, 학원은 일정 규모 이상 강의실과 강사 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

휴원 규모는 집계가 진행될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일부 학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급과 보강 시간 편성 등 현실적 어려움 탓에 휴원을 망설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에서는 24일 현재 3380개 학원·교습소 중 666곳이 휴원했으며 이후 상황은 집계 중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봄 재촉 비…시민은 마스크 무장** 광주·전남지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5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거리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우산을 받쳐든 채 거리를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로나19 여파 광주송정역 이용 승객 대폭 감소

광주의 철도 관문인 광주송정역 이용 승객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폭 감소했다.

25일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송정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 2만 2000명이던 고객이 평소 대비 40%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레일 측은 승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통로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군과 자원봉사센터 합동으로 선제 방역을 하고 있다.

김성모 광주송정역장은 "광주송정역 북쪽 통로만 사용함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하기 위한 대기 줄과 이동 동선이 더 길어졌다"며 "고객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5·18 왜곡·폄훼 바로잡을 'SNS 기사단' 떴다

### 15명 선발 오늘 발대식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온라인상에서 바로잡을 SNS 기사단이 떴다.

25일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 행사위)에 따르면 40주년 기념행사를 알릴 SNS 시민홍보단 합격자 15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11명의 블로거와 4명의 유튜버들로 구성된 SNS 시민홍보단은 광주·전남 지역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인원들로 구성됐다.

26일 오후 7시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홍보단은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만의 재기발랄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제 40주년 5·18기념 행사를 국내외로 알릴 계획이다.

홍보단 활동을 하는 블로거는 월 3회 이상 포스팅을 진행하고, 유튜버는 월 2회 이상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합격한 이들에게는 시민홍보단 명함과 시민홍보단증이 제공되고 매월 활동비(블로그 포스팅 1회당 10만원, 유튜브 영상 1회당 15만원)가 제공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업가 납치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검거

### 도피 9개월만에 충남 아산서

광주에서 납치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해 살인혐의로 지명수배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씨가 범행 9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5일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조씨를 충남 아산지역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19일 광주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홍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번 사건과 '판박이' 사건인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바 있다.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공범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여친 다쳤는데 소방대원 왜 빨리 안와" 모텔 유리문 부순 20대

쌍나팔

○…여자친구가 다쳤는데 소방대원이 빨리 오지 않는다며 모텔 유리문에 화풀이를 한 20대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이날 새벽 3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가 넘어져 머리에서 피를 흘리자 119에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왜 빨리 오지 않느냐"며 모텔 입구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부셨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데다, 술을 마신 상태라 욱하는 마음에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